유네스코 가야산 골프장 반대표명

해인총림등 5개대책위 건설저지 규탄대회

취소판결 사법부 비난…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해인골프장 건설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인총림대책위 등 각 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인총림대책위 스님 5명은 10일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방문해 골프장건설로 인한 팔만대장경 훼손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보존과학회, 문화재위원회 등과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해인대책위원장 성법스님(해인사 주지)을 비롯해 선원 강원 율원의 대표자스님들은 확대회의를 통해 허가-취소-허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불교계 및 해인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결론짓고 대책위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총력저지를 다짐하는 한편 골프장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현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이어 대책위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종단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청와대를 비롯 내무 문체 건설교통부 등 13개 정부부처에 진정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교구본사에 '가야산 골프장 사업승인 철회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해인총림대책위원회,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 5개 대책위는 지난 6일 소속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서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범시도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해인골프장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법부는 시대착오적 판결 즉각 철회 △(주)가야개발의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상기한 건설계획 철회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해인사강원 80여 학인스님을 비롯 '결사반대' 구호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른 회원들은 이날 '불교성지 가야산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등의 플랜카드를 내세우고 골프장건설이 완전백지화 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공동대책위는 유인물을 통해 각 대책위별 골프장건설 저지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대구경북대책위는 주1회 가두캠페인, 사업주 항의방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문체부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불자 1천여명은 6일 백운리 집단시설지구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골프장건설이 백지화 될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선암사 인근아파트 조성 '규탄'

스님·신도 1백여명 주공본사서 평화시위

선암사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판사의 조정회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고층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선암사 종교용지 경내지 2만3천평을 강제수용 벌목, 심지어 법당까지 파헤치자 선암사 스님 신도 1백여명이 지난 10일 상경, 주공의 공사강행을 규탄하며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73호 19면〉

이날 '전통사찰 선암사 도량수호 및 자연보호대회'는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 현정부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등을 채택하고 △선암사 소유 토지수용 철회 △종교자유에 반한 위헌적 행위 중단 △환경권 보장 △전통사찰의 유용을 파괴하는 개발제일주의행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주공 사장에게 전달했다. 또 논현동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무폭력 시위를 5시간여에 걸쳐 전개했다.

한편, 선암사는 부산지역 제단체들과 연계해 오는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연합법회를 봉행, 종교환경권과 녹지대 파손을 자처하는 주공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을 근절하자"

불교, 공동대책위 동참

10대소녀 집단성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7개 종교 교육 여성민간단체로 구성된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진관)'가 지난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의 도덕성회복을 위해 활동을 개시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을 위해 구체적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공동대책위는 자체 근절책 마련과 함께 교육당국에 대해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사후대책마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학생들이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상설 고발전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시카고서

7월27일~8월3일 월주스님-달라이라마 회동할듯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와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통해 21세기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

불교-기독교연구협회와 시카고 디파울대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세계적인 종교사회운동가가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불교측 특별초청인사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티벳승왕 달라이라마, 캄보디아 불교지도자 고사란다스님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세계적인 인권 평화운동가인 태국의 슐락 시바락샤, 스리랑카 사회운동가 아리아 라트나 등이 본회의에서 연설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의 윤리학 △카톨릭과 불교의 대화 △불교와 기독교 △토마스 밀톤 △여성과 종교 △미디어 공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등 13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풍족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 △21세기종교의 문제점과 대안 △위기의 도시 전쟁하는 나라 등 9개 소주제를 놓고 토의한다.

한국측에서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 법륜스님(정토불교회) 유정길사무국장(불교환경교육원)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와 불교계의 남북통일을 설명하고 월주스님이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황룡사·감은사 복원 '청원서' 제출

불국사, 청와대에 모형도등 자료제시 정책화 요구

경주시가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 복원작업을 추진〈본지 81호 보도〉중인 가운데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이 지난 9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불사 청원서'를 접수시킴으로써 그동안 몇차례 거론됐던 두 사찰의 복원논의가 본격화됐다.

설조스님은 청원문에서 "황룡사와 감은사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가람으로 이들 사찰의 복원불사가 불교도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자료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최근 복원 모형도가 제작되는 등 복원자료가 분명한만큼 복원불사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폐사지의 당해 시·도와 문화재관리국은 복원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과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복원을 반대해 왔다. 또 문화재 전문가들도 불충분한 자료로 추정에 의해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는 복원에 필요한 비용담당은 물론 최근의 연구성과를 들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교문화와 호국정신이 이룩한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히는 황룡사와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감은사 등은 신앙적 측면에서도 다시 복원해 신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청원서제출은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와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던 강화 선원사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의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정부측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 갈등 '해결'

현대건설 41억원 합의금 확정

현대건설이 조계사에 대웅전을 비롯한 해탈문 문화교육관 등의 복구비로 4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일보 신사옥 건설로 인한 대웅전 등의 붕괴진행으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완전 마무리됐다.

조계사와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조계사 교화사무국에서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한 해탈문 문화교육관 등의 복구비지급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라 41억원을 합의금으로 확정했다. 또 총무원이 계획중인 총무원청사 신축공사시 다른 건설사와 같은 조건이면 현대건설에 우선해서 시공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은 이날 현금 8억원을 조계사측에 지급했으며, 잔여액 31억원은 10월 9일까지 세차례에 나눠 지급키로 하는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불교 해난구조봉사단 가동

13일 발대식…사고예방·후속처리등 만전

각종 해상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봉사단(총재 월주스님)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스님)은 지난 13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해난구조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해난사고 예방 및 후속처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서했다.〈관련기사 76호 15면〉

이날 발대식을 가진 해난구조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불교계뿐 아니라 대사회적인 해난사고에 대한 예방캠페인 및 구조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해양재난사고 처리 및 해양 환경보호에 선두역할을 담당한다.

복지재단은 해양구조자원봉사단 구성에 이어 산악재난인명구조자원봉사단을 결성, 사회봉사활동의 새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불뉴스

사찰농토 비과세 불가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요청에 대해 "전통사찰이 장래의 불확실한 용도를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원칙에 맞지않고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 배치되어 농지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실명전환토지 98.8%

조계종 중앙부동산실명제대책반(반장 원우·재무부장)은 명의신탁토지의 실명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6월30일 현재 제3자에게 명의된 조계종 소유 사찰토지(공찰) 9백 32만여평(7백5필지)가운데 98.86%인 9백21만여평이 실명전환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1명에 장기기증 주선

생명나눔실천회가 올 상반기동안 11명의 환자에게 신장 및 각막등 장기를 기증, 새생명을 찾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이사장 법장스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기증사례를 밝혔다.

은해·불국사스님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은해사 불국사 본말사 주지스님연수회를 제10교구본사 은해사에서 개최했다.

25일 불자교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불자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사회병리와 불교적해석(정락스님), 우리 삶에 스며 있는 불교(윤청광씨), 사찰문화 해설(신영훈 불일문화원장) 등의 강의와 참선, 운수암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일붕문도회 활성모임

1965년 초에 결성된 일붕문도회는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에서 문도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어린이 연꽃운동회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제주지구(지구장 인성스님)는 지난 14일 제주농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3회 연꽃운동회를 개최했다.

마음 생각을 모두 놓으면

나라는 생각, 내것이라는 생각, 목신·아만·이기심. 내게 이롭다는 생각을 모두 놓으면 진리는 구하지 않아도 제발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뽀소식을 맞으러 산넘고 물건너 헤매다가 돌아와 보니 뜰앞에 매화가 벙그러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심산유곡 山蔘

佛心의 香氣로 그윽한
한 佛子가 山蔘을 캤습니다.
修行중에 고생하시는 분께
布施하는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 (0416)841-6576
山 僧 合掌

수련원 운영하실분

※【1】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대형버스 마당까지 진입할수 있도록 포장 완료
수련원 및 노후 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전원속에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 능력 구비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수가 조화를 이룬 명당
현재 사법, 행정고시원및 수련원으로 이용중
■ 부 지 : 10,344평
■ 건 축 물 : 총평수 354평 (건물 6동)
■ 위 치 :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 거리

※【2】
서울소재
서울 도심지 소재
교통의 중심지,
포교원으로 좋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창 건 : 약 10년
■ 대 지 : 90여평
■ 건 물 : 160여평(3층빌딩)

※문의처 : 02) 233-2500
0338) 71-8210 , 011-279-4600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
『무문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선종어록 해석을 위한 한문법의 체계적 정리!
중국에서 선종은 당·송시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곧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원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秋月龍珉·秋月眞人 著/慧 譯/신국판 양장/값 12,000원
'96 불교서적 종합목록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불교서점이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비를 위하여 훌륭한 자녀를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